

특발성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의 임상적 고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성정훈 · 진규복 · 이기태 · 홍수희 · 황은아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배 경 : 특발성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은 주로 소아 및 청년에서 발병하며 약 50%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들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장기 예후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방 법 : 1982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계명의대동산병원에서 신생검으로 특발성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을 진단받은 51명을 대상으로 이들 환자의 진단시 임상 양상, 장기 추적성적을 조사하였다. 이들 환자의 임상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진단 당시 환자의 나이, 성별, 단백뇨량, 고혈압의 유무 및 신기능을 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결 과 : 총 51예중 제1형이 49예 (96%), 제2형이 2예 (4%)였다. 남녀비는 1.7:1로 남자에게 많았고 평균 연령은 32±17세 (7-70세)였으며 30세 이하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 진단 당시 임상 양상은 신증후군이 36예(70%), 무증상적 요이상 9예 (18%), 급성 신염 및 육안적 혈뇨가 3예 (6%)였다. 진단 당시 동반된 소견으로는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가 80%였고, 현미경적 혈뇨 67%, 고혈압 39%, 신부전이 22%였다. 진단후 6개월 이상 추적이 가능하였던 40예의 평균 추적기간은 71개월이었으며 이 기간중 10예 (25%)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고 신기능 악화가 9예 (22.5%), 정상 신기능 유지가 21예 (52.5%)였다. 8예 (20%)에서 단백뇨의 완전 관해가 있었는데 이들 중 신부전으로 진행한 예는 한예도 없었다. 단백뇨의 완전 관해군에서 비관해군에 비해 진단 당시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고 (17±6 vs 33±15, p=0.000),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1:3, vs. 1:0.5, p=0.042) 진단 당시 신기능, 단백뇨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기능 악화군과 신기능 유지군 사이에 나이, 성별 및 진단시 신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신기능 악화군에서 단백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7.4±5, vs. 5±3, p=0.05). 환자의 신생존율은 5년 및 10년 신생존율이 각각 86.8%, 59.2%였다. 단백뇨 완전 관해군의 5년 및 10년 신생존율은 모두 100%임에 비해 비관해군의 5년 및 10년 신생존율은 83.2%, 50.9%로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 론 : 특발성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은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며 연령이 낮을 수록, 여성에서 관해율이 높고 진단시 단백뇨량이 많을 수록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생각한다.